

첨부 : 본심 심사평

## 2011 공연예술창작기금 1차(본심) 연극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4.21(목) 16:00~18: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최치림, 김미혜, 김태훈, 김선욱, 황치준

2011년도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업 1차 공모에서 예심 통과된 총 18편의 작품을 심의하였다

5명의 책임심의위원이 6개월의 공연기간 동안 현장 실연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을 하였으며, 단체가 제출한 성과보고서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심사 후 개별적인 채점을 하였다. 희곡, 연출, 연기, 무대예술 등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에 70%의 절대적인 비중을 두어 높은 점수를 주었고, 참신한 시도와 실험성도 심의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관객의 호응도와 홍보 등을 통한 대중과의 거리 좁히기 등 사업 계획 달성을 위한 노력도도 평가하였다.

지원금은 차기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창작기금으로 지원되므로 공연한 작품의 소요 예산이나 지원신청액을 고려하기 보다는, 선정된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심사대상 18개 작품 중에서 2개 작품이 대극장에서 공연되어 5천 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특급에 해당되었고, 다른 작품은 모두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여 최고 5천 만 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채점 결과에 의거하여 지원 결정된 작품의 심사의견과 지원결정액은 다음과 같다.

### 1. 공연창작집단 뛰다 <내가 그랬다고 너는 말하지 못한다>

맥베스를 주제로 삼아 뛰다 스타일로 잘 해석하였다. 신체를 이용해 엄청난 연습을 한 배우들의 역량이 살아있었다. 다소 억지스럽거나 어수선하고 맥락이 없어 보이는 점은 아쉬웠으나 권력에 대한 욕망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4천 만 원 지원

### 2. 그린피그 <누가 무하마드 알리의 관자놀이에 미사일 펀치를 꽂았는가?>

권투선수 알리를 대비시키며 이주노동자로 등장하는 알리가 현실을 고발하는 소재가 색달랐다. 콘서트와 드라마를 결합한 콘서라마의 특이한 형식이었는데, 콘서트와

드라마가 따로 노는 느낌도 주었다. 정제되어 있지는 못하였지만 연출의 개성이 돋보이고 17명의 남자배우로 구성된 배우들의 훈련된 연기가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에너지가 넘치게 하였다. 4천 만 원 지원

### 3. 극공작소 마방진 <칼로막베스>

마방진식 한국적 맥베스로 탈바꿈에 성공한 작품이다. 고선웅 연출의 스타일과 창의력이 유감없이 드러나고 잘 훈련된 배우들의 몸을 던지는 연기가 돋보인 수작이다. 철제로 만들어 적절히 활용된 무대세트도 강렬한 극의 성격을 잘 살렸다. 5천 만 원 지원

### 4. 극단 백수광부 <미친극>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메타드라마로서 텍스트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연출가가 매끄럽게 잘 풀어 나갔다. 상징적인 무대가 생소하지만 잔혹한 현실을 풍자하는 데 잘 들어맞았고, 작가의 역량과 배우들의 열연이 극의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4천 만 원 지원

### 5. 극단 골목길 <아침드라마>

텔레비전의 아침드라마처럼 황당함에 코드를 맞춘 작품이지만 극의 설득력은 다소 떨어졌다. 박근형 연출의 힘으로 관객 관심은 높았지만 전작인 <너무 놀라지 마라>에 비해 완성도는 낮았다. 관객들의 반응에 호불호가 갈리는 공연이지만, 일정 수준은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한다. 4천만 원 지원

### 6. 극단 입체 <눈바래기>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감성을 무추얼적으로 풀어나간 점이 좋았다. 연기는 좋은 편이었으나 무대 장치는 미흡하였다. 지역 연극임을 감안했을 때 괜찮게 만든 작품이다. 4천 만 원 지원

### 7. 극단 피악 <악령>

젊은 연출가가 3시간이 넘는 대작에 도전하여 큰 극장에서 구현해 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 연출가가 작품을 끌어가는 힘이 좋았으며 몽환적이고 무대를 넓게 쓴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어려운 작품을 쉽게 풀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 5천 만 원 지원

### 8. 연희단거리패 <경성스타>

연극사적으로 짚어 보고 싶은 이야기를 이윤택 연출가가 의욕적으로 준비하였다. 초연이라 작품의 완성도에 아쉬운 점은 있으나 좀 더 다듬어서 재공연을 한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러 층의 관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것도 이 작품과 연출가의 힘이

다. 5천 만 원 지원

9. 하땅세 <3cm>

잔잔하고 격조 있는 멜로드라마로서 실화를 극화한 작품이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연일 관객 매진 사례로 호응이 높았고 정서에 호소하는 연출력이 관촬았지만, 부분적으로 섬세함이 부족한 점이 보였다. 4천 만 원 지원

연극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2011 공연예술창작기금 1차(본심) 무용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4. 19(화) 10:00~11:30
- 장소 : 예술위원회 3층 위원실
- 심의위원 : 배정혜, 정귀인, 문애령, 이원국, 양한성

### <종합평>

이번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업 1차공모 무용분야는 총 8개의 예심통과 단체 중 최종 5개 단체를 지원대상 단체로 선정하였다. 전체적으로 춤 양식 자체의 독창성 차원에서 볼 때 뛰어나다고 할 만한 작품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으나 내용과 형식 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연출력을 통해 관객지향적 컨셉트로 구현한 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몸의 움직임에 대한 본질적 창작정신이 부족한 작품은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였다.

본심 8개 작품 중 아지드현대무용단의 '新 자유부인 2010'은 무대구성과 연출력,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 다른 작품에 비해 특히 탁월하여 최우수작품으로 선정하는 데 심사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다른 4개 작품도 관객과 같이 호흡하려는 뚜렷한 목표의식 하에 무대장치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면서 세련된 감각의 장면구성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수공연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선정되지 못한 다른 작품들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안무방법, 춤 본연의 진정성, 주제 메시지의 전달력, 작품구성의 대중성 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을 노출하여 향후 창작활동 전개에 있어 분발이 요구되었다.

### 무용책임심의위원 일동

### <개별사업평>

#### 1. 아지드현대무용단 '新 자유부인 2010'

영상과 무대미술 장치를 적절히 활용하되 단순한 보조적 도구가 아닌 춤 전개 흐름과 하모니가 이루어짐으로써 관객이 몰입할 수 있는 기본구도를 제시하였다.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나무랄 데 없었으며, 작품소재에서 묻어나는 신선한 감각이 엿보였다. 세부장면들을 연결해 나가는 구성 면에서 재미있었고 세련미가 감돌았으며, 보통의 복합장르 형식의 무용공연에 비해 차별화된 작품완성도를 보여주었다. 옛 영화필름을 편집 투영하는 시도를 통해 시대반추적 공연물로서의 가치도 드러낸 수작이었다.

## 2. 조성희아하댄스씨어터 ‘첫날밤 이야기’

춤 동작의 연결이 참신하고 출연진의 기량도 우수하였으며, 적절한 영상 이미지 사용은 작품전반의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데 유효한 수단이 되었다. 산뜻하면서 간결한 춤사위를 통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대중성 있는 작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스토리 라인의 해체와 결합 측면에서의 세부작품 구성력만 좀더 보강된다면 훌륭한 레퍼토리 공연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3. (사)리움춤연구원 ‘호랑이가 시집가는 날’

한국 창작춤의 현대화 작업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공연단체로서 이번 공연을 통해서도 작품성 개발에 꾸준히 힘쓴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소 정형화된 움직임의 양상을 보인 측면이 없지 않았으나 다양한 감각의 영상, 음악, 의상 등을 활용한 무대구성을 통해 관객의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었다. 기본적으로 주제의식의 전달력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대중적 레퍼토리 공연의 잠재력을 보여준 작품이었다.

## 4. 댄스씨어터창 ‘기다리는 사람들 II’

남북분단 문제를 다룬 극적 효과가 무용연출에서는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으며, 주제의 메시지 전달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마당놀이 형태의 무대와 객석을 구성하여 관객과 적극 호흡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었으며, 무거울 수 있는 정치적 이슈를 블랙코미디 형식으로 흡수한 연출력은 관객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작품내용을 채운 놀이와 노래의 성향이 기존 작품들과 중복된 면이 있어 다소 아쉬웠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작가의 발전적 미래를 그려보는 데 무리가 없는 작품이었다.

## 5. 파사무용단 ‘색다른 공기’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소재이지만 관객이 보다 쉽고 명료하게 안무자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신선한 감각을 접목하여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시도가 돋보인 공연이었다. 또한 춤 동작의 구성 형식상 작품주제로부터 연상되는 모티브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면서 완성도 높은 연출력을 선보였다. 상대적으로 무대장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춤에 대한 진정성 측면에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으나, 작가의 역량을 고려할 때 향후 발전적으로 보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었다.

## 2011 공연예술창작기금 1차(본심) 음악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04. 13(수) 10:00~13:0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최덕식, 박재은, 김흥수, 김창욱

### □ 총 평

2011년도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1차공모, 본심) 음악분야에서는 총 3개 단체가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심의위원들은 예심을 통과한 심의대상사업들의 공연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공연성과보고서 등 공연결과물을 당초계획과 비교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하였다.

심의기준은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공연계획 실행의 충실성, 공연성과 및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특히 이번 1차 공모에서는 그간 창작품의 개발과 소개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던 장르와 지역안배도 고려하여 대상단체를 선정하였다.

또한 기금 지원이 목표하는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연의 예술적 완성도와 함께 단체의 창작공연 개발역량 등도 비중을 두고 심의하였다.

차기 지원신청에는 보다 많은 창작품들이 신청되어 우수창작물 개발과 역량있는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라며 참여해주신 모든 단체에게 감사드린다.

음악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 세부 평가

### 1. 구미오페라단

열악한 창작오페라 분야의 여건을 감안할 때 지역에서 개최된 창작무대라는 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무대였다. 전체적으로 공연 기획이 잘 구성되었고 청중의 호응도 좋은 공연이었다. 음악과 무대연출 및 제작기법에서 조금 더 조화를 이루고 다듬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이 개선된다면 지역무대에서 모처럼의 창작오페라를 성공적으로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 2. 로얄오페라단

창작오페라 공연의 희소성과 지역에서의 활동이 기대되는 공연이었다. 실험적인 음악적 시도와 다양한 무대연출 등 공연제작의 노력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다. 전체적인 공연기획의 완성도 측면에서 보다 발전된 차기 공연을 기대해 본다.

### 3. 앙상블오푸스

전체적인 공연 프로그램에서 창작품이 비중 있게 다루어진 공연이었다. 또한 창작품의 구성이 짜임새 있고 대중적인 호소력을 지녀 관객의 반응도 좋은 연주회였다. 특히 실내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작품들이 많이 위촉되고 연주되기를 희망하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공연이었다.

음악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 2011 공연예술창작기금 1차(본심) 전통예술분야 심사평

- 일시 : 2011. 04. 23(토) 10:00 ~ 12:00
-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회의실
- 심의위원 : 강호중, 이창신, 전지영, 채치성, 이정만

### □ 심사평

공연예술창작기금 지원사업(1차 공모) 본심 회의는 사업개요와 심의계획서에 대한 설명과 책임심의위원들의 공연 현장을 직접 찾아가 느낀 내용들을 서로 논의가 있던 후 심의 방법에 대해 책임심의위원과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본심 10개 작품의 평가 방법은 전통분야로서 전통적인 음악어법과 내용들이 잘 채워졌는가, 연주자와 관객들과의 호흡, 그리고 작품이 예술적 수월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 되었는가를 보았으며, 공연을 하는데 있어 신청내용과 현장 공연이 제대로 반영되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단체 결과보고서에 자율평가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져 있는가 등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책임심의위원이 작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작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고, 의견을 함께 공유하면서 공연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전반적인 공연 진행의 충실성, 관객 호응도 및 국악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최대한 공정성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전통분야책임심의위원 일동

### □ 개별 사업평

#### 1. wHOOL(훙)

단체의 극장분위기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흥대 클럽문화 속에서 단원들의 창의력이 돋보였으며, 피리 연주자가 나발, 피리 등 여러 악기를 다루어 역량이 좋았다. 또한 일반 국악과는 다른 일렉트로닉 등 여러 장르와 합쳐진 국악에 관객들이 환

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음악이 흥대에 자리 잡았다는 자체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 2. 강원소리진흥회

강원도를 연고로 하는 공연단체로, 강원도 지역에는 우리 국악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 이번 공연에서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의 음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열심히 작품을 만들었다는 모습이 역력했다. 기대 이상으로 좋았던 공연이었고, 뭔가 보여 주려는 의지와 노력이 돋보인 작품이다.

## 3. 동국국악예술단

경주는 우리나라 역사상 1,000년 수도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서동요의 이야기를 주제로 국악 칸타타를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의 테마와 잘 맞았으며, 작품에 들어가는 음악적인 부분들이 전체가 창작곡으로 많은 노력이 들어갔다는 점은 높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4. 서울국악관현악단

이 단체는 꾸준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작품들이 차별성 및 독창성이 부족하고 발전 및 변화의 노력이 두드러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위촉 초연의 지속적인시도 및 관현악과 성악의 조화 및 춤과의 조화 등이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 음악동인 고물

공연의 내용이 다소 급조되거나 전반적으로 도전적인 분위기 등이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기존 관행과 관습에 도전하고 음악 다큐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이 기대된다.

## 6. 창작국악그룹 그림(The 林)

이야기가 있는 음악극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한 소리꾼의 입담과 몸짓이 관객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으며, 전통과 영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등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젊은 국악그룹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발전가능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